

'아름다운 어촌 찾아가기 행사' 성료

제4차 상록보육원생들과 주문도에서

도 시민들에게 어촌 어항 어장의 각종 체험 거리를 소개해 큰 인기를 얻었던 '아름다운 어촌 찾아가기 행사'가 지난달 29일, 30일 양일간 인천 강화도 일대 어촌 어항 어장에서 실시한 제4차 행사를 끝으로 올해 행사를 마쳤다.

이번 행사에서는 서울 사당동 소재 상록보육원생 60명이 참가, 강화군 주문도 서도어촌계에서 머무르며 다양한 섬 어촌 체험을 즐겼다.

주요 일정을 보면 29일 첫째날 강화본도에서 강화역사관, 광성보, 전등사 등 문화유적을 관람하고 삼보여객터미널에서 여객선을 타고 1시간40여분을 이동, 주문도에 도착했다. 이동 시에는



강화 주변어촌, 섬, 바다정경 등을 감상하며 갈매기 밥주기 체험도 했다. 서도어촌계 마을회관에서 민박을 하고 다음날 오전 갯벌 조개잡이 체험을 실시했다.

조개잡이 체험에 참여한 원생들은 조용한 분위기에서 가을 바다의 아름다움을 만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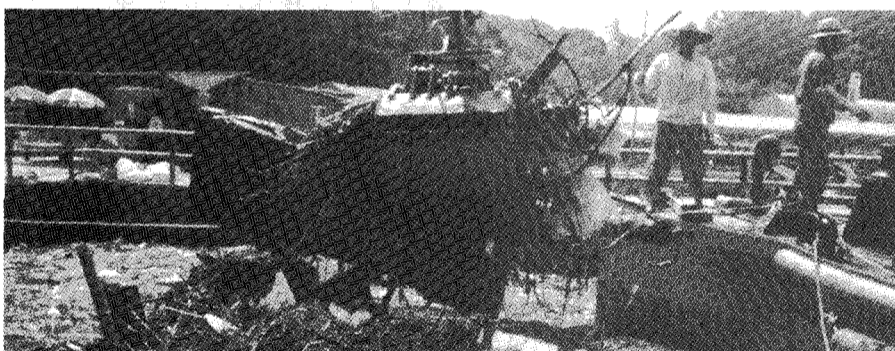
특히 이번 행사는 새우, 조개, 생굴 등 갯 잡아온 현지 수산 특산물 맛볼 수 있었고 마을회관에서 숙박을 하여 섬마을 주민들의 생활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실시한 '아름다운 어촌찾아가기 행사'가 전반적으로 무난한 진행을 통해 도시인들에게 어촌체험 거리를 제공했다고 보고 내년부

터는 다양한 이벤트를 가미해 동, 서, 남해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광고문의 (02)3673-2854

어항청소선·크린오션호, 오폐물 1,836톤 수거 142개항에서 872일 작업



한국어항협회가 관리 운영하는 어항 청소선과 다기능해양폐기물전용 수거선 크린오션호가 올해 국가어항과 연안, 그리고 어선이 주로 이용하는 항만과 지방어항에서 총 872일 동안 1,836여톤의 오폐물을 수거해 어항 주변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용별로 보면 군산, 목포, 고흥, 여수, 통영, 포항, 주문진, 인천 등 우리나라 연안 142개항에서 부유물 255여톤, 침전물 153여톤, 장애물 1,429여톤의 오폐물을 각각 수거했다.

어항청소선과 크린오션호는 전국 연안 시·군 및 일선수협과도 유기적 협조 체제를 구축, 효율적인 어항 청소와 어항 환경정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특히 지난 8월에는 제15호 태풍 '메기'로 인해 발생한 항내 부유물 처리를 위해 목포연안, 여수신항, 속초항 등지에서 청소작업을 실시하였으며 9월 17일 거행된 '전국해안가대청결운동'에도 참가, 해양환경 의식 고취에 일조를 하였다.

그러나 현재 어항청소선은 항간이동이나 원거리 출동에 어려움이 있어 도서지역을 포함한 전국의 어항과 연안수역의 원활한 청소를 위해서는 어항청소선의 증톤 및 증척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